AUTHOR 최병규

TITLE Martin Luther의 역사관과 종말사상

IN 고려신학보
vol. 20 (December, 1991): 91-105

으로 알 때 더 이상 희망이 아니다. 이 희망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배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추정하기 때문에 주제넘은 짓이다. "구원 약속의 성격은 구약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미래 기대에 관계될 때 그 구약의 이해내에서 의미를 가진다."(177페이지)

서평하고 있는 본인은 구약과 신약사이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주석적이고 신학적인 심사숙고를 잘 연구한 그란플란드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란플란드의 논지는 대단히 적절하며 잘 고찰한다면 그것은 구약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의 현재 태도에 때늦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고려신학보 제20집 1991 고려신학대학원 p.91-105

Martin Luther의 역사관과 종말사상

최 병 규
(Th.M.2. 역사신학)

서 론

루터 연구가들 중에는 Paul Althaus와 같이 루터의 신학사상 전반에 있어서 종말론적 차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1], 또 어떤 이들은 루터가 현재적 측면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의 사관-대표적으로 두 왕국 교리-에는 종말론적 관련성이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챤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고향을 찾도록 만든다는 비평을 하기도 하는 이들이 있다.[2]

그러나, 필자가 고찰한 바로는 이러한 견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역사관은 종말론적 사상이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루터의 역사관을 먼저 살펴보고, 그의 사관속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사상을 제시해 보려 한다. 물론 종말론을 그의 사관속에 포함시켜서 진술할 수 있겠으나, 비판받는 종말론 사상의 희박성에 대한 반증을 시도하고, 나아가서는 루터사관에 나타나는 종말 사상의 명증성을 시사하기 위하여 사관과 종말 사상을 분리 취급키로 했다.

루터에게 있어서 역사관은 성경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성경을 떠나서는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을 떠나서는 역사의 의미조차도 의문시 되어지는 것이 루터의 사관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역사가가 역사기술까지도 성경의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조류를 통제하신다는 전제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존경과 칭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루터에게 있어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1)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66),pp. 404~405.

2) cf. Franz Lau, "The Lutheran Doctrine of the Two Kingdom," *Lutheran World*, Vol. 12, 1965, p. 368. 최덕성, "루터사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오병세 박사 회갑 논문집) (개혁주의신행협회, 1986), p. 329에서 인용.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면서 활동하시는데, 이런 의미에서 루터는 세상을 하나님의 활동무대(playground)라고 했다. 이 하나님은 사전의 반대편(sub contrario)에 숨어 계시면서 그분의 권세를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 세상은 동시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투기장이며, 세상의 역사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전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자연히 루터는 이러한 사관에 기초하여 자기자신을 이해하게 되며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루터의 두 왕국의 개념은 종말을 향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루터가 현재적인 면들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종말을 예고했으며,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챤들에게 성도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해야 될 것을 가르쳤고 나아가서 심판의 그날이 조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

1. 루터의 역사관

루터의 사고 양식과 방법은 역사에 대한 그의 이해의 기초 위에서 가장 잘 연구되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역사해석은 그의 모든 사상에서와 같이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3] 그 중 몇몇을 언급해 본다면, 역사와 계시, 역사내에서의 하나님의 활동, 역사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 역사에 있어서 고난과 십자가, 인간의 통제 밖의 사건들의 필요성과 인간적 계획과 행위의 제한들, 역사의 목표 그리고 역사내에서의 개인적 인격의 위치등이 있다.[4]

그러면 루터의 역사관을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역사관과 성경, 역사의 가치와 의미와 패턴 역사기술과 성경의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투로서의역사, 루터의 역사관과 자기이해 등의 문제를 살펴본 후에 그의 종말사상을 서술해 보자.

1-1. 역사관과 성경

그런데, 루터에게 있어서 역사관은 성경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성경을 떠나서는 형성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을 떠나서는 역사의 의미조차도 의문시 되어지는 것이 루터의 사관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역사기술까지도 성경의 하나

3) Bernhard Lohse, *Martin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p. 193.

4) Ibid., p. 194.

님이 모든 시대의 조류를 통제하신다는 전제위에서 출발하지 않을 때는 보잘것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루터에게 있어서 강조된 부분인 성경적인 사상은 그의 신학사상 전반과 역사관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기에 에벨링(Ebeling)같은 이에게 있어서의 루터는 우리들의 "말씀-사건)(word-event)의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듯 보이기도 하며, 루터는 성경과 신자의 본질을 변증법적으로 연결시키는 실존주의자로 나타난다고 한 것이다.[5] 그리고 Hegel은 그의 역작인 *Lectures on The History of Philosophy*에서 루터와 멜랑톤이 스콜라주의적 요소를 내버리고, 성경과 믿음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그들의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고 말함으로써 루터에게 있어서의 성경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6] 루터의 개혁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함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7]

루터는 성경이 간단하지만 잘 기록된 역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성경이 꾸밈없는 역사의 역사인 것을 시사했다. "성경은 퍽 간단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잘 기록된 역사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완전히 나타냅니다. Vergil이 Dido에 대한 사랑을 여러 말로 말한 것을 히브리 말은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암몬은 다말을 사랑하였다(삼하 13 : 1)라고. 여기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몇 마디 말로써 말해버립니다."[8]

1-2. 역사의 가치, 의미, 패턴

역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함에 있어서도 루터는 신중심적 관점(theocentric prospective)에서 조망한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의 기억은 신앙에 위안과 양식을 준다고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지식은 유익하다고 했다.[9] 비록 이교도들이 의식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이 쓴 참된 역사들은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심을 주장했으며[10], 큰 미움을 초래함이 없이 역사를 기록하고 진리를 기술할 사

5) J.W. Montgomery, *Where is History Going?*(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 House, 1969), p. 200.

6) Hegel, *Lectures on The History of Philosophy*(N.J.: Humanities Press, 1983), p. 12

7) *Ibid.*, p. 150.

8) *Tischreden*(Weimar Ausgabe, 1912~1921), 1,467. 이하 TR로 표기.

9) TR 1, 1077.

10) TR 1, 441.

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했다.[11]

루터는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았다. 그는 어거스틴과 곧 이어 칼빈에 의해서도 주장된 바와 같이 성경적 전통(biblical tradition)에 서 있었다. Rushdoony는 이 역사에 대한 신중심적 관점(theocentric prospective)은 그를 현대의 역사기술론(historiography)으로 부터 분리시킨다고 한다.[12] 물론 여기에서 Rushdoony가 현대의 역사기술론으로 부터 분리시킨다고 할 때의 이 표현은 사변적 역사철학이 아닌 비평적 역사철학의 입장과 대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13]

루터는 역사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속에서 보여질 때에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논증했는데, 인류와 영원한 언약을 설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인 것이다.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의 광경으로 보여질 때에 역사는 의미와 구원하는 능력을 잉태하게 된다. 루터는 이 능력이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루터는 세속적 연대기적 역사와 영적 구원적 역사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를 결정지었을 때에 Augustine의 자취를 좇았다. Augustine은 성경적 예언들을 사탄적, 현세적 세력과 신적, 영적인 세력사이의 투쟁으로, 하나님의 도성과 마귀의 지상의 도성의 투쟁이라는 개념과 연관지었던 것이다. 어거스틴의 두 도성이란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 : the heavenly)과 지상의 도성(Civitas Terrena : the earthly)을 말한다.[14]

그리고 비록 루터가 그 시대의 인문주의적 역사적-비평적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는 항상 역사란 즉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속에 있는 시간의 성취인 신적인 구조로서 보아져야 한다는 Augustine의 주장에 의해 지도받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루터의 역사관에 있어서 역사철학적 개념인 패턴을 발견하게 되며, 그것은 역시 어거스틴의 개념과 일치하는 직선적 해석(linear intpretation of history)임을 알 수 있다.

11) TR 4, 4147.

12) R.J. Rushdoony, *The Biblical Philosophy of History*(Nutley,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9), p. 21. cf. John M.Headley, Luthefs view of church History (New Havei Yale Univ. press, 1963), p. 1.

13) *Ibid.* cf.J.M.Headley, op.Cit., p. 2.

14) 최병규, "Augustine 사관의 역사철학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신학보 제19집(부산 : 고려신학대학원, 1990), pp. 84~102. 참조. esp. p. 94f.

1-3. 역사기술과 성경의 하나님

루터는 1543/44년의 창세기에 대한 최종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역사가란 역사의 기록이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시대의 조류를 통제하신다는 전제에 기초한 기록을 할 때에만 존경받고 칭송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Vergil, Homer, Livy혹은 다른 이들로 부터 기록된 이교도의 역사들은 그들이 제아무리 많은 말들로 수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헬라와 알렉산더 그리고 한니발의 역사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웅장함과 영화로움, 왕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결여하고 있다. 이 왕관을 그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치라고는 없는 기록들이며, 차라리 실제적인 역사들이다. 주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며, 내 영광이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이것으로 나는 즐거워 한다. 내가 여기에 거주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없는 역사란 무엇이란 말인가? 따라서 이것들이 얼마나 어린애 같고 비열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광대함과 제한되지 않은 비중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진 것이다. 비록 알렉산더나 줄리어스 시이저 및 다른 역사들이 탁월하고 아주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들은 진정한 장식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으며 진정한 무게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배와 육신에 대하여만 영광스러울 뿐이다."[15]

역사의 해석자로서의 루터는 오직 그리고 오로지 성경만의 해석자였다. 동시에 그는 예리하고 분별력 있는 눈으로 사건들을 관찰했다. 비록 그가 그의 자료를 자연적이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했지만, 그의 가치판단은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다.[16]

1-4. 역사와 하나님의 활동

루터에게는 성경의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능한 주이셨다. 무엇이 발생하든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것이다. 에라스무스가 루터의 하나님에 대한 결정론적인 모습에 반대했을 때에, 루터는 전능한 것은 하나님의 업무라고 주장하였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인간 이성과 하나님 의지의 권능 사이에는 광대한 차이가 있다. 1525년에 루터는Erasmus에

15) Eric W.Gritsch, *Martin-God's Court Jester. Luther in Retrospect*(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pp. 99~100.

16) American Edition of *Luther's Works*(Philadelphia and St. Louis, 1955~), 5 : 353 이하 LW로 약기.

계 하나님의 의지란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의 규칙"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17]

그리고 루터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세상을 자신의 창조자로서 자신을 충만하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무대(playground)라는 그의 견해와 연관지었다. 나라들이 흥망하거나, 자연적 재난이 오가는 것, 그리고 역사적 과정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의미없이 나타나는 것 등등.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셨음을 밝혔다. 그분은 단지 사건의 반대쪽에(under the contrariness: sub contrario)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한편으로 그분은 그의 권세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전능하신 주이시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약하게 나타나시면서 이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도록 운명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이시다.[18]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면성, 즉 하나님에 대한 루터의 두 개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루터의 역사관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숨겨진 의미(sub contratio)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루터가 두 가지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한다. 즉 숨겨진 하나님(hidden God)개념과 계시된 하나님(revealed God)개념이 그것이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은 고통과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 업적이 권좌에서 쫓겨났으며, 업적으로 훈도받는 옛 아담이 십자가에 못박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은 십자가에 감추어지신 하나님(Deus absconditus)이시다. 루터가 강조했던 이 감추어진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Deus revelatus)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일차적으로 의지의 속박(The Bondage of the will)에서 발견되며, 또 다른 저서들 속에서도 나타난다. 루터는 이것을 삼위일체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보았고, 에라스무스와의 사이에 생긴 문제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도구로서 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연구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기도 했다. Otto Ritschl은 이러한 루터의 신개념에 대한 이중적인 구조는 가슴아프게도 두 신들이 있다고 한 Marcion적인 교리를 상기시킨다고 했으며, Reinhold Seeberg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potentia Dei absoluta)와 하나님의 중재적 능력(potentia Dei ordinata)에 관한 둔스 스코투스학파(the Scotist)와 오캄주의자(the Ockhamist)들에 대한 루터의 개인적 전유로서 보기도 했다. 또한 Werner Elert는 말하기를,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그리스도 없이 운명의 힘으로서 경험

17) Eric W.Gritsch, op. cit., p. 98.

18) Ibid., p. 99.

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일차적인 경험을 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숨겨진 하나님(the hidden God)과 계시된 하나님(the revealed God)에 대한 개념은 그의 저서 "의지의 속박" 내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루터는 의지의 속박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이러한 사상의 형성에 있어서 그것의 필수적인 근거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통해 발견한 신개념인 것을 알 수 있다.[19]

그리고 루터가 하나님과 마귀가 역사적 사건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독특했다. 이것은 루터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따랐던 것과 같은 원리이다. 루터의 신학은 곧 십자가 신학(eine Theologie des Kreuzes)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 십자가 신학의 내용은 오래 전에 확립되었지만, "십자가 신학"(theologia crucis)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서 강해(1518-18)의 12장 11절을 주석할 때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는 귀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했다.

"성경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개념들이 빈번하게 병행되어 있다. 예를들어 심판과 의, 진노와 은총, 사망과 생명, 악과 선 등이 그러하다. 이것은 "대저 여호와께서…일어나시며…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사 28 : 21)의 귀절에서 언급된 것이다…왜냐하면 시편4편 1절 "곤란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에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양심을 기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 귀절은 "당신은 나를 중시하셨으며 향상시키셨습니다"의 뜻이다. 이런 것은 은총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로마서5장 4절에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라고 쓰여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을 발견한다. 또는 사도가 고전1장 18장과 23절에서 "십자가의 도가…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라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20]

19) Bernhard Lohse, op.cit., pp.169~170.

20) "Lectures on the Epistle to Hebrews," ed. James Atkinso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16*(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2), pp. 233~234. cf. Karl Wengenrot, "The Theology of the Cross,"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CTQ)*, October, 1982, p.270.루터는 St.Martin's Day에 "Unum praedica: sapientium crucis!" 즉 preach one thing: the wisdom of the Cross!라고 설교하면서, 고전 1장 18절에 바울이 말한 바 "십자가의 말씀"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을 간결하게 요약하였다.

그런데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언급하면서, 두 종류의 신학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 루터는 신학자로 부를 사람이 있고 부르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음을 말했다. 신학자로 불림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일어난 사물들 가운데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며, 반대로 신학자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어진 하나님의 보이고 명백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은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말한다. 십자가 신학의 반대인 영광의 신학(theologia gratia)은 십자가와 십자가를 수반하는 진정한 가치가 전적으로 낯설게 여겨지는 자연인의 신학이다.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신학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의 신학은 십자가와 고통을 싫어하는 신학이다. 그것은 업적과 영광, 강함과 지혜, 그리고 선을 말하는 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하는 신학이다.[21]

또한 루터가 본 하나님은 자아계시를 통해 계시되어진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유로 되어지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결코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견되어질 수 없다. 이 범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는 결코 명백하거나 단순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하나님의 사역)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2]

이 점에서 루터의 견해는 Müntzer나 다른 열심파들과는 달랐다. 그들은 그들이 특별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절대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선지자적 권위를 가지면서, 그들 자신을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로 보았다. 그러나, 루터는 이 접근은 영적인 시련과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무시한 것이며, 그들의 부적절한 자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로, 루터는 농민전쟁(Peasants' War)의 결과, 특히 뮌처의 비극적인 종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 것이다.[23]

1-5.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투로서의 역사

루터의 중심적인 전제는 역사가 종국적으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투기장이라는 것이다. 이 전제는 처음으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City of God*)에서 나타나는 바 역사적 해석의 위대한 전통속에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뿐만 아니라 루터의 교황권 비판의 가혹성은 오직

21) LW 31:53. Heidelberg Disputation 19~21 논제 참고.
22) Bernhard Lohse, op.cit., p.194.
23) Ibid.

이 역사관의 용어들속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24]

Augustine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역사적 종합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성의 영적이고도 종말론적인 본질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것을 두 도성의 개념으로 설명해 가는데, 그 두 도성이란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 the heavenly)과 지상의 도성(Civitas Terrena: the earthly)을 말한다. 그는 이 도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랑 -사실 이 사랑의 질(質)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Conf. 13. 9. 에서 "당신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알고 싶어 하는가?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만 보아라"고 하면서 서술하고 있다-은 두 종류의 도성(사회)를 만든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추구하는 사랑은 "지상의 도성"을 만들고 자신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도성 "을 만든다. 전자는 자기를 자랑하고 후자는 주님을 자랑한다. 전자는 인간으로 부터 영광을 추구하고 후자는 양심의 증거자인 하나님을 최상의 영광으로 삼는다. 전자는 자기의 머리를 높이 들고 자신을 자랑하지만 후자는 하나님께만 "당신만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높이 들어 줄 분이십니다"라고 말한다."[25] 즉 두 종류의 도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라는 영적인 도성들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이 두 도성의 기원과 갈등과 종국이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형성해가고 있음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도성"은 선한 천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이며, "지상의 도성"은 타락한 천사와 불신앙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지상의 도성은 가인에게서 출발하였고, 하나님의 도성은 그의 형제인 아벨에게서 시작했다. 그런데 이 두 도성은 긴장과 대립을 계속해 감에도 불구하고 서로 혼합되어 있어 역사의 종말까지 함께 진행해 가게 된다. 그러므로 주로 구원사적이며, 그 종말론적 완성의 용어들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도성은 로마의 운명과 함께 존립하거나 패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심판을 통해 두 도성은 분리되어 "지상의 도성"에 속한 자들은 끄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승리와 축복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때 그 상태는 현재의 세계를 뒤덮고 있는 모든 구름은 걷혀지고 영원한 태양 빛 아래에서 어린양의 보좌를 중심하

24) Ibid., p. 195.
25) Augustine, City of God, 14.28. cf.Edward R.Hardy,Jr., "The City of God," in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ed. Roy W. Battenhouse(Oxford Univ. Press, 1955), p. 269.

여 예배와 사랑가운데서 사는 성도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다.[26] 이상에서 약술한 이것이 어거스틴의 역사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루터에게 있어서는 어떠한가?

물론 Augustine의 두 도성과 Luther의 두 왕국 개념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진단함에 있어서-서로 투쟁하는 두 세력과 두 공동체 즉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묘사에서-루터는 확실히 어거스틴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27]

1-6. 그의 역사관의 맥락에서 본 루터의 자기이해

이 역사관은 또한 루터의 자기이해를 결정짓는다. 즉 루터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1521년 보름스의회 이후에 현자 프레드릭 선제후는 그에게 안전을 위해서 발트부르그에 은신해 있기를 요구했다. 1522년 5월 5일에 쓰여진 한 편지에서, 루터는 비텐베르그로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논하기를, "마귀는 내가 겁이나서 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내가 보름스에 들어갔을 때 내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지붕의 기와장같이 많은 마귀가 나를 기다리는 것을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으로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 갔을 것이다"라고 한 것에서 그의 역사관이 가져온 자기이해를 엿볼 수 있겠다.[28]

하나님과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들의 싸움에도 가담한다는 견해를 가졌으며, 루터의 이와 같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전투로서의 역사관과 하나님의 사역의 숨겨진 개념은 그의 촛점을 개인과 그들의 상황들에 맞추도록 결정지었던 것이다.[29]

2. 루터의 종말사상

루터의 종말사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어휘들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 "재림", "마지막 날"과 같은 말들이다.

사실 루터 신학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종말론적 차원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교리에서나 이신득의의 교리 등에

26) *City of God*, 22. 30.
27) 지원용, 루터사상의 진수 (서울 : 컨콜디아사, 1989), p.228
28) LW 39 : 51~54. 참조.
29) Ibid. cf.Bernhard Lohse, op. cit., p. 196.

서 그러하다. 크리스챤이 된다는 것은 가진 것이요 동시에 가지지 못한 것이며, 된 것이요 동시에 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챤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이미 받아들인 것들은 종말을 향하도록 가리키고 있다고 Paul Althaus는 지적해 내었다.[30]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크리스챤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회의 상황과 역사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주권에 관해서도 동등되게 사실인 것이다. 교회는 아직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압박과 저항에 의하여 그위에 닥쳐오는 비통한 고통을 견뎌만 한다.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며 십자가의 신학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종말론이 된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게 될 미래를 기다리고 소망한다.[31]

여기에서 Paul Althaus는 루터의 신학에서의 종말론적 사상을 잘 서술하고 있다. 루터의 신학은 전반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기대하는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종말론적이다. 종말에 대한 그의 사상들은 하나의 관습적인 부가물이 아니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의 신학의 한 분야이며, 필수불가결하게 그의 신학의 본체의 결정적인 한 부분인 것이다. 루터는 종말론의 중심적인 이 교리에 있어서도 그는 역시 개혁자였다(Er erweist sich Vielmehr auch hier als Reformator)라고 하면서 루터 사상에서의 종말론적 차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1. 재림으로 인한 마지막날의 심판과 상황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롬2 : 5을 주석하면서 마지막 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날은 진노의 날과 자비의 날, 고난과 평화의 날, 혼란과 영광의 날이라고 불리운다. 왜냐하면 그 때에 불경건한 자는 징벌을 받고 당황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똑 같이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의 빛을 통하여 다스리는 저 영적인 날도 역시 진노와 은총의 날과 구원과 멸망의 날이라 부른다. 시편 110편 5절을 보라. 곧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곧 지금 임한 은총의 날과 때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스바냐서 1장 14절을 보라. "주의 날의 음성은통렬하다. 힘있는 자가 고난을 당하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 역경과 절망의 날, 나팔과 경종의 날…"이라고 한 것이다.[32]

30) Paul Althaus, op.cit., p.404. Der Christenstand ist ein Haben und zugleich Noch ~nicht~ Haben, ein Sein und zugleich Noch~nicht~Sein, erst ein Werden.
31) Ibid.
32) LW 25 : 135~170. cf. WA 56 : 157~188.

또한 루터는 마지막 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 날에는 큰 파멸이 있을 것이다. 그 때에는 모든 것이 재로 화할 것이며 전 세계는 본래의 혼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될 것이며, 우리는 변화를 받을 것이다.[33]

아울러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올 최후의 날을 알기는 하나, 대개 이와 같이 영광과 마음의 영원한 평화외에는 미래의 최후의 날이 어느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시는 미래의 최후의 그 날은 영광스럽과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인데 그 날의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성경적 사상을 간직하고 있음을 본다.[34]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간의 주관적 해설을 시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올 종말의 임박성을 표현하기 위한 진술로 볼 수 있겠다.

"내 생각으로는 그 날이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부활절 후에, 이른 아침 해뜰 때 올 것 같습니다. 하늘이 구름으로 가리워질 것이며 한 시간이나 혹은 좀 더 길게 벼락이 칠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보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번개치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은 갑자기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35]

또한 마지막 때가 올 때, 우리는 세례의 은총의 옷을 입게 됨을(das Westerhemddlin)을 시사하기도 했다.[36]

사실, 종말론에 있어서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데, 루터는 어거스틴을 따르면서 계시록(Revelation)을 교회사의 설명으로서 취급했다. 그의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지배였는데, 그는 그것을 교황권(papacy)과 동일시했다.[37] 그리고 교황권의 몰락에 대한 성취에 의해 용기를 얻어, 루터는 오직 세상의 종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믿음에 있어서만은 어거스틴과는 달랐다.[38]

그리고 루터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을 너무 강조했던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의 두 왕국 교리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종말론적 관련성이 결

33) TR 5, 5686.
34) TR 3, 3894.
35) TR 5, 5686.
36) TR 3, 3070a.
37) D.W.Bebbington, *Patterns in History. A Christian View*(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sity Press, 1979), p.60. cf.J.M.Headley, op. cit., p. 224.
38) Ibid. cf. J.M. Headley, op.cit., p. 267.

여되었고 크리스챤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고향을 찾도록 만든다는 식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39]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Paul Althaus는 종말론적 차원(eschatologische Beziehung)이 루터 사상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그의 신학은 엄격한 의미에서 세상의 종말을 기대하는 전적으로 종말론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40]

사실 그의 두 왕국은 하나님과 사탄에 의한 전투로서 진행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위에서 언급한 루터의 견해들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볼 때, 루터의 사관은 다분히 종말론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2-2.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지혜

그에게 있어서 사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확실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한다.[41] 이런 이유로 인해 루터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대답할 수 있었다. 즉 크리스챤은 그리스도의 품에도 안식한다는 것이다(Die Christen ruhen in Christi Scho B).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외의 어떤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 : 26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자는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죽을 때에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안식할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품안에서 지켜지고 보존되기 때문이다(An sie muB der Mensch sich im Sterben halten, und in ihnen hat er dann seine Bleibe und Ruhe, in Christi Scho B gefasset und bewahret bis an den Jüngsten Tag).[42]

루터는 마지막 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하면서 믿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과 거기에 부합해서 인내하면서 생활해야 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믿음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친다. 거기에다 소망은 이렇게 덧붙일 것이다. 좋다. 만일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걸자. 그리고 만일 그 후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주인이 된다

39) cf. Franz Lau, op. cit., p. 368.
40) Pual Althaus, op. cit., p. 404. Luthers Theologie ist durch und durch eschotologisch im strengen Sinne der Enderwartung.
41) Ibid., p. 410.
42) Ibid., p. 412.

면 우리는 참아야 할 것은 무엇이나 참자."[43]

그러면서도 루터는 이러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의 조속한 도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 그리스도의 신실한 지체이고 가난하며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과 방문의 때가 그의 나라와 함께 속히 임하여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44]

이상에서 살펴본 루터의 종말사상은 분명히 그의 역사관이 필연적인 종결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Paul Althaus가 WA 37 : 68을 인용하면서 지적한 내용은 이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

"루터는, 신약성경도 그러하듯이, 개인들의 사후에 미래에서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것과 역사가 종말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왕국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적인 갱신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완전성 또한 기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크리스챤들의 육체적인 부활 뿐만 아니라 로마서 8 : 21에서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한 모든 피조물들의"(aller Kreaturen mit uns)구속과 완전에 대해서도 보증이 되신다."[45]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루터의 근거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루터는 성도들의 사후세계의 생활,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날, 심판 등에 대한 해석을 성경에 근거해서 호소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루터의 역사관과 종말사상을 살펴보았다. 루터 연구가들 중의 어떤 이들은 루터가 현재적 측면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의 사관 -대표적으로 두 왕국 교리-에는 종말론적 관련성이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챤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고향을 찾도록 만든다는 비평을 시도했다.

그러나, 필자가 고찰한 바로는 이러한 견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역사관은 종말론적 사상이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역사관은 성경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성경을 떠나서는

43) TR 1, 145.
44) TR 5, 5775.
45) Paul Althaus, op. cit., p. 424. cf. WA 37, 68.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을 떠나서는 역사의 의미조차도 의문시되어지는 것이 루터의 사관이었다.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며, 역사가가 역사기술까지도 성경의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조류를 통제하신다는 전제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존경과 칭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루터에게 있어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면서 활동하시는데, 이런 의미에서 루터는 세상을 하나님의 활동무대(playground)라고 했다. 이 하나님은 사건의 반대편(sub contrarion)에 숨어 계시면서 그분의 권세를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 세상은 동시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투기장이며, 세상의 역사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전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루터는 이러한 사관에 기초하여 자기자신을 이해했었다.

그리고 루터의 두 왕국의 개념은 종말을 향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루터가 현재적인 면들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종말을 예고했으며,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챤들에게 성도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해야 될 것을 가르쳤고 나아가서 심판의 그날이 조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살 것을 권면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루터의 역사관은 종말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Paul Althaus의 지적같이 루터 신학 전반에 흐르는 종말론적 사상이었다는 점이다.

Theologia est infinita sapientia,
quia nunquam potest edisci.
Luther(WA 40 Ⅲ. 63, 17)